

경제부흥, 국민행복, 문화융성, 평화통일 기반 구축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기획재정부

보도일시	2017. 3. 28.(화) 10:00	배포일시	2017. 3. 23.(목) 11:00
담당과장	예산실 예산정책과장 최한경 (044-215-7130) 예산실 기금운용계획과장 허승철 (044-215-7170)	담당자	김현영 사무관 (044-215-7132) khy0522@korea.kr 서동진 사무관 (044-215-7171) seodj@korea.kr

내년도 예산, 민생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해 지출효율화로 4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

- 4대 분야: 일자리, 4차 산업혁명, 저출산, 양극화 대응 -

□ 정부는 「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」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·확정하였음

○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

【재정운용 여건】

□ 내년도 국내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, 정책효과 등으로 수출 및 내수가 점차 개선되며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,

○ 기업구조조정, 가계·기업부채 부담 등은 위험요인

□ 세수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제약할 가능성

○ 아울러, 의무지출 증가, 미래대비 재정소요 증가 등 세출 소요 확대에 지속적인 재정효율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

【자원배분 중점】

① 일자리 창출 · 양극화 완화 · 일가정 양립 우선 지원

-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,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
- 저소득층 · 취약계층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지원 확대로 양극화를 완화하고,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을 통해 일 · 가정 양립 도모

② 4차 산업혁명 · 신흥시장 진출 · 신산업 투자 강화

-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,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, 인력양성, 인프라 조성 등 투자 확대
- 동남아 ·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,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수출역량 제고

③ 국방 투자 · 치안서비스 · 재난 예방으로 안심사회 구현

- 북한 핵 · 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투자 및 테러 대비 등 치안서비스 확충
-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 대응 및 지진 · 가축전염병 · 신종 감염병 등 다양한 재난대비 강화

⇒ ‘일자리 창출, 4차 산업혁명 대응, 저출산 극복, 양극화 완화’ 4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· 선제적 투자 확대

【재정운용 전략】

⇒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활용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

방안 1

유사중복 및 의무지출 철저한 관리로 효율성 제고

① 유사중복 사전차단 등 신규사업 관리 강화

- 신규사업 요구시 관계부처의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

② 의무지출 적정소요 점검

- 의무지출은 불용액 규모,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소요를 산정하고, 신규사업은 중장기(10년) 재정소요 점검

방안 2

수요자 및 성과 중심 사업재편으로 효과성 제고

③ 부처칸막이를 해소하는 융합예산 편성

- 대학창업, 관광, ODA 등 3대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간 사전협의(4~5월)를 거쳐 수혜자 중심의 융합예산 편성

* 시범사업 효과, 부처 협업정도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확산 추진

④ 주요 재정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재편

- 일자리, 수출, R&D 등 3대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,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

방안 3

촘촘한 사업관리로 재정누수 방지

⑤ 보조사업 전면 점검

- 전체 보조사업에 대해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 사전점검 ('17년 연장평가 미대상 보조사업)을 실시
- * 각 부처는 지속 지원, 감축, 폐지 등을 구분하여 요구

⑥ 출연사업 관리 강화

- 1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 도입, 특별한 노력을 통해 자체수입 확대시 인센티브 제공 등

⑦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

- 사업별로 복잡·다양한 융자조건을 개선하고, 공통지침 마련

⑧ 대규모 사업의 연계시스템 강화

- 예타-총사업비 관리범위를 일치시키고, 타당성재조사 실시기준을 사업규모별로 차등화*

* (현행) 총사업비 20%이상 증가 → (개선) 사업규모별 15~20% 차등화

방안 4

재정건전성 기반 마련

⑨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

- 재정외자금의 국고 편입*,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장기·고액 채납액 감축 등 재정수입 기반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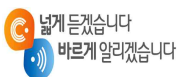
* 경륜·경정 공익사업적립금,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등

⑩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

-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(70년) 실시하고,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·수지 준칙 등 마련

【향후 계획】

- 이번 지침은 3.31일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이며,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5.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
 - 기획재정부는 부처협의를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9.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
- 또한, 동 지침은 중앙정부,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8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됨
 - * 보다 구체적인 사업별 절차, 작성요령, 각종 기준·단가 등은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

민생안정 · 경제활력 · 국민안심

기본
방향

- ◇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, 미래대비 투자 확대
- ◇ 재정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재정효율화 지속 추진

재원
배분
중점

- 청년 일자리 지원
- 양극화 완화 및 일하는 복지 지원
- 저출산 극복 등 일가정 양립 지원

- 4차 산업혁명 대응
- 신흥시장 진출 및 수출유망기업 지원
- 바이오, 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

- 국방 핵심전력 투자
- 테러대비 등 치안서비스 확충
- 환경위해 및 재난 대비 강화

4대 핵심분야 전략적 투자 확대

“일자리 창출, 4차 산업혁명 대응, 저출산 극복, 양극화 완화”



재정
운용
전략

효율적 재정운용

-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① 신규사업 관리 강화 | ⑥ 출연사업 관리 강화 |
| ② 의무지출 적정소요 추계 | ⑦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|
| ③ 수혜자 중심 융합예산 | ⑧ 대규모사업 관리시스템 연계 |
| ④ 성과중심 재정사업 재편 | ⑨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|
| ⑤ 보조사업 전면 점검 | ⑩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|